

메시지 3

에베소서—바울이 계시와 관련하여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

성경: 엡 1:15-23

I.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가장 깊은 주제인 교회를 다루고 있다. 에베소서는 일곱 방면에서 교회를 밝혀준다.

- A.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,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자 표현이다—엡 1:23, 4:13.
- B.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새사람, 곧 단체적인 한 사람이다—엡 2:15.
- C. 교회는 성도들을 시민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며, 성도들은 왕국의 권리들을 갖고 왕국의 책임들을 진다—엡 2:19.
- D.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, 곧 생명과 누림으로 충만한 가정이다—엡 2:19.
- E.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다. 하나님의 거처는 우주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성전이고, 지방적으로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다—엡 2:21-22.
- F.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식과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아내이다—엡 5:24-25.
- G.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고 패배시키는 전사, 곧 단체적인 한 전투원이다—엡 6:11-12.

II.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가 계시와 관련하여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이다.

- A. 교회를 보려면, 우리에게 보는 영, 계시하는 영,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—엡 1:17.
 - 1.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영 안에 사는 사람이다.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지 않다면,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것에 관해서도 분명할 수 없다. 우리가 사물과 일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우리의 영 안이다—고전 2:11상, 계 1:10, 4:2, 17:3, 21:10.
 - 2.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어지럽힐 수 없다.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영으로 피하고 우리의 영 안에 머물기를 반드시 훈련해야 한다.
 - 3. 교회를 알거나 교회에 속한 무언가를 보려면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.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, 우리의 영으로 피함으로써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.
 - 4.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머문다면 교회가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다.
- B.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세 가지,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(엡 1:18),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(18절),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(19절)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.
 - 1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“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, 곧 영광의 소망”이다—골 1:27.
 - a. 우리가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깨닫고 체험하고 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소망이시다—갈 1:15상, 16상, 17상, 2:20, 4:19.
 - b.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, 의롭다 하셨으며,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어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(롬 8:29-30). 어느 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완벽히 똑같은 것이다(요일 3:2).
 - c.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자신과 완전히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.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최종 완결이며,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다—빌 3:21.
 - 2. 우리 안에 넣어지신 그리스도 자신만이 하나님의 유업이 되실 수 있다.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신진대사적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—롬 12:2, 고후 3:18, 롬 8:29.
 - a.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변형되어 철저히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때,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.

- b. 사랑스런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유업이 될 것이고, 이 유업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완전히 넣어지신 그리스도 자신일 것이다.
 - c. 사실상 우리 안에 넣어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이시며,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유업이다.
3. 우리는 교회를 산출하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, 곧 그리스도를 살리고, 그리스도를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고,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고,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여 교회에게 주신 능력을 보아야 한다—엡 1:19-23.
- a. 이 사중 능력, 곧 부활시키고 초월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교회를 산출한다. 이 능력은 믿는 ‘우리들을 향한’(엡 1:19) 것이고 ‘그분의 몸인 교회에게’(22-23절) 주어진 것이다.
 - b. ‘교회에게’는 일종의 전달을 함축한다.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것은 모두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된다. 이러한 전달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, 즉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신 것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앉으신 것과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신 것과 만물 위에 머리의 권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눈다.
 - c. ‘믿는 우리들을 향하여’와 ‘교회에게’는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신성한 능력이 한 번 만에 영원히 우리 안에 이미 설치되었고, 지속적으로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으며,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, 그리스도의 몸, 곧 그리스도의 충만으로서 합당한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(22-23절).
 - d.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이미 설치되었지만, 우리는 모두 우리의 역량이 커져서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.
 - (1) 우리 안에 있는 부활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,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나오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. 우리 가운데 죽음이 더 많을수록 교회가 더 적어지고, 우리 가운데 죽음이 더 적을수록 교회는 더 많아진다.
 - (2)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기회들이다.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한다면,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.
 - (3)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외적인 규정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, 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정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. 우리가 하나님의 정복하는 능력을 완전히 체험한다면, 교회생활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—고전 6:12, 10:23.
 - (4)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며,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한다. 만물이 머리와 그분의 몸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교회가 나타나게 된다.
 - e. 일단 우리가 교회를 산출하는 능력을 보았다면,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필사적으로 되는 것이다.
 - (1) 우리는 “주님, 저는 저를 억누르거나 굴복시키거나 다스리는 모든 것에서 구원받기를 필사적으로 원합니다.”라고 기도해야 한다.
 - (2) 그리스도는 신성한 발전기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. 그분은 역동적이시고 강력하시지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시다.
 - (3) 우리는 필사적임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넓혀야 한다.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서 교회의 나타남을 볼 것이다.